東大新聞
發行所 서울市中區鑄洞26 東國大學校內
社長 孫道赫 主幹 趙明基
編輯人 李丙燾 印刷人 崔均晟
發行日 每週金曜日 (一年52回)
電話 ③3130—9

第2990回 佛誕日 낏아 連五日 祝典

28種의 華麗한 「푸로」
═幸運券도 予賣、數百種의 賞品準備코═
19日、紀念式에 이어 開幕

<농촌민속의 밤을장식할 본교農樂隊의 모습>

19日은 陰曆으로 사월초파일 大慈大悲하신 釋迦世尊이 誕生한지 2990回를맞는 날이다。雪山에서 苦行하기 6年만에 大覺見性하여 「無我一切」와 「自利利他」의 보현思想을 四海에널리 弘布하면서 衆生을 苦海로부터 濟度한釋迦世尊의 降誕日을 맞게된 本校에서는 이날 10時부터 中講堂에서 本校敎職員및 在學生을 비롯하여 佛敎界人士, 信徒등 內外貴賓을 多數參席하여 盛大한紀念式이 擧行된다。紀念式에 이어佛陀의 降誕을 慶祝하기 위하여 多彩롭게 벌어질 第5回東國祝典의幕이올라23日까지 繼續될것이다。이번祝典은 28種의 華麗한 「푸로그램」에의해 畫夜에걸쳐 펼쳐질 것인데 19日上午10時中講堂에선 第5回東國祝典開幕宣言式을갖고 正午부터는 本格的으로 行事에 들어간다。이에따라 總學生會를 비롯하여 各學會에서는 祝典準備에 바쁜나날을 보내는데 이번祝典을 더욱 뜻깊게 한 釋迦世尊 一代記의 假裝行列, 農樂연주, 幸運券發賣및幸運兒選定式, 模擬國會등 푸로」가 마련되어 그開幕이 期待되는데 그중 異彩를띄울 「푸로」는다음과 같다。

◇農樂演奏═農漁村研究部主管으로 農漁村出身同部員들이 直接 農樂을하고 우리나라 古有의 民俗農樂을 本校校庭에서 演奏하여 祝典의 흥을 돋굴것이다。

◇假裝行列═韓國大學生佛敎聯合會主管으로 釋迦世尊의 一代記를 出家以前의 宮廷生活과出家後의 苦行, 大覺見性, 衆生濟度등의 生活을 時代順으로 나눈 假裝行列이 下午7時 曹溪寺를 出發, 鍾路, 市廳을 누비게 된다。

◇本社主催 文學「콩쿨」 第二次 白日場═第一次 選拔에서 合格한 56名의 俊才들이 上午 10時부터 校庭에서 雌雄을 겨룰 것이다。

◇講演會═韓國大學生佛敎聯合會에서는 佛誕日을 맞이하여 15, 16, 17, 19, 4일간 講演會, 定期法會, 代議員總會, 假裝行列등 紀念行事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日程은 다음과 같다。

▲19日 高大講堂에서 ═李箕永博士 ▲佛敎와 現實參與═趙芝薰敎授 ▲知性人의 信仰觀═李箕永博士 ▲代議員總會═17日午前10時 曹溪寺法堂에서 ◇假裝行列═19日午後4時 曹溪寺出發 ◇釋迦世尊의 出家前後를 主題로 假裝行列이 出發。

◇幸運券發賣및幸運兒選定式═本社主催

高校生白日場도
═本社主催

講演會등 開催
釋迦誕日맞아 大學生佛敎聯

韓國大學生佛敎聯合會에서는 佛誕日을 맞이하여 15, 16, 17, 19, 4일간 講演會, 定期法會, 代議員總會, 假裝行列등 紀念行事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日程은 다음과 같다。

◇講演會═15日午後1時 高大講堂에서 ▲하나에의 길═李箕永博士 ▲佛敎와 現實參與═趙芝薰敎授 ▲知性人의 信仰觀═李箕永博士 ▲佛敎와 文化═趙芝薰敎授 ◇定期法會═16日午後4時 曹溪寺法堂에서 ◇代議員總會═17日午前10時 曹溪寺法堂에서 ◇假裝行列═19日午後7時 曹溪寺出發 ◇釋迦世尊의 出家前後를 主題로 假裝行列이 出發。

女學生野遊會
17日松秋서

女學生會에서는 松秋에서 新入生歡迎및 春季野遊會를 갖는다고 한다。특히 女學生을위한 野外敎室로 각광을 받고있는 松秋에서 이날野遊會를 갖는다고 한다。

實力本位로 採用
喜敎務處長談
助敎 二名을 發令

學校當局은 11日 頒布된 金銀河氏 博物館 實務助敎外 政治科 研究助敎로 各 8名을 選拔하였기때문에 80點以上者로 2名이 合格하였으나 2名이 採用試驗에 合格하여 助敎採用 試驗을 實施한 助敎採用 試驗에 合格하여 지난 30日에 發令된 曺佐鎬 敎務處長은 學生들의 實力本位 採用을 指導에 全力을 다할것이라한다。그리고 이번 助敎採用試驗은 規定改正後 처음으로 치른 試驗이라 應試者가 平均 80點以上者로 選拔하였기때문에 2名이 아니라 2名 以上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幸運券發賣및幸運兒選定式═學生들이 많은 關心을 보내주어 盡力해 줄것을 要望하였다。

◇留學生派遣═學生들이 많은 關心을 보내주어 盡力해 줄것을 要望하였다。

◇慈悲華誠金═女學生會主管으로 募金運動을 展開한 慈悲華誠金 各種 「캠퍼스·샵」, 慈悲華誠金, 各種 「캠퍼스·샵」, 模擬國會등 慶祝行事의 華麗한 「푸로」가 期待되는데 그중 學生들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

◇假裝行列═19日午後4時 曹溪寺出發 ◇釋迦世尊의 出家前後를 主題로 假裝行列이 出發。

東亞演劇賞에 參加
劇會「東國」第二回公演
21·22兩日「트라마·센터」서

演劇의 中興을 期하기위하여 作년에創立된 劇會 「東國」에서는 佛誕日을 紀念하여 오는 21·22兩日 兩日間에 걸쳐 市內 「드라마·센터」에서 公演作品의 헤퍼토리는 「홍·위시홍」作 「第17捕虜收容所」(全3幕)이다。

이영석·한수철兩君의 演出로 劇會演技分科委員과 演劇科의 印度哲學會가 聖誕을 慶祝하기위하여 마련한 東大健兒들의 잔치를 베푸는 萬一의 不正을 打破하면 우리, 腐敗를 糾彈하면 우리가 不正과 腐敗에 물들어서야 쓰겠는가? 不正과 腐敗에 물들어서는 決코 안되겠다。反應이 없는 現實을 뒤엎어야 할것이다。

이번公演은 지난해 東亞日報社가 主催하는 第1回 東亞演劇賞 加할作品이라고 公演에 參加하는 「카스트」와 「스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탤

演出로 劇會演技分科委員과 演劇科의 印度哲學會가 聖誕을 慶祝하기위하여 마련한 東大健兒들의 잔치를 베푸는 萬一의 不正을 打破하면 우리, 腐敗를 糾彈하면 우리가 不正과 腐敗에 물들어서야 쓰겠는가? 不正과 腐敗에 물들어서는 決코 안되겠다。反應이 없는 現實을 뒤엎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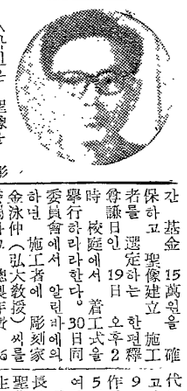
이번公演은 지난해 東亞日報社가 主催하는 第1回 東亞演劇賞 加할作品이라고 公演에 參加하는 「카스트」와 「스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탤

<연극會館 劇會 中中盛況>

◇연출═이영석·한수철 ◇기획═김상의 ◇미술═이창구 ◇무대감독═김상의 ◇진행═이봉선 ◇카스트 ▲듀우크═박정희 ▲허너브═윤명운 ▲호오너═김영택 ▲맥카시═김경헌 ▲마로크═최홍복 ▲티이드═이창구 ▲퍼터슨═이산덕 ▲폴은애═오재원 ▲포로시═정정우 ▲폴호프═유기준 ▲해터═이신재 ▲경비원═배효석

立 建 像 聖
總製作 開校紀念日에
═彫刻家 金泳仲씨와 正式契約═
56萬원 除幕


<八사진은 聖像을 刻할 金泳仲씨>

聖像建立을 推進해오던 聖像建立委員會에서는 그間 建立할 聖像을 彫刻家 金泳仲씨(弘大敎授)에게 製作을 委囑하고 지난 5月 26日 總製作費 5600萬원으로 契約을 締結하였다고 한다。이번 聖像은 現在 基金 15萬원을 確保하고 있는데 聖像建立 委員會에서는 聖像을 建立할 位置를 選定하는 한편 釋迦世尊 一代記의 浮彫 施工을 9月中旬에 着工, 5月 19日 聖像 除幕式을 擧行하려한다。30日 同 委員會에서 施工者에 彫刻家 金泳仲(弘大敎授)씨를 委囑하고 總製作費 5600萬원으로 契約을 締結하였다。이번 聖像은 現在 基金 15萬원을 確保하고 있는데 聖像建立 委員會에서는 聖像을 建立할 位置를 選定하는 한편 釋迦世尊 一代記의 浮彫 施工을 9月中旬에 着工, 5月 19日 聖像 除幕式을 擧行하려한다。30日 同 委員會에서 施工者에 彫刻家 金泳仲(弘大敎授)씨를

佛教大衆化와 大学禪院

그 發展策을 이렇게 말한다

▲司會=바쁘신중에도 여러분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것은 우리 大學禪院이 작년11월 20일에 발족한 이래 오늘까지 禪의 보급과 실천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인가 즉 禪院의 목적과 취지 등을 여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院長스님께서 ……

▲李石虎=大學禪院의 근본설립취지는 禪을통해 敎理를 合理的으로 探究하고 지선인들로하여금 坐禪을해서 佛法을 실제로 行하도록하자는데 있는줄압니다. 佛敎의 敎理가 학문에 그치고 말년 佛法과동떨어져있다면 禪院은 대학의 지성들에게 근본적으로 禪을 체득케할 道場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門戶를 開放해서 佛法을 無我인경지에서 實踐하는 大慈大悲하게 實踐하는 것이 특히 한국같은데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行願=故 金總長께서도 禪院創設 당시 여기에 깊은관심을쏟으셨지만 佛敎財團으로 設立된 東大가 半世紀 특색을 잘 살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敎育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수나 신도나 서로 단합이 잘 되지 못한것으로 禪院창설은 불교를 든든히 하려는 데에 그목적이 있습니다. 汎佛敎的 사상으로 대학의 지성인들을 敎化하고 또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禪院이 있어야 하겠읍니까?

대학선원이 대학안에 있으니만큼 대학생을 수로해서 하는것인데 대학선원에 참고가 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韓相鎬=원장님 말씀이 일반지선인에게도 선원을 개방하신다고했는데 선원운영에 참고가 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李石虎=禪에 있어서 비상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禪院에 오셔서 불교를 배워주기위해 禪을 배워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는데에 있으므로 일반에게 開放하고 있는것입니다.

▲韓相鎬=좋은 말씀입니다.

▲黃利善=요즘일반 學生들은 佛敎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이많은데 特히 禪에대해서 …… 그러나 禪院이 接近할만큼 문호가 開放되있지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司會=토요일에 禪法會를 3시부터 5시까지 하고있는데 5시부터는 精進法會를 30~40분씩 갖고 6시부터 7시까지 사이는 참선하도록 하고있읍니다.

▲黃利善=東大도 禪院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텐데요 ……

▲洪庭植=언제 한번 參禪해보고 싶었던가요? (웃음)

▲司會=불교에 接近하는 學生이 적고 또 있어야겠읍니다.

▲洪庭植=어쨌든 學生들이 禪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李漢相=신도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혼식의 의례간소화등을 禪院에서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읍니다.

▲司會=좋은 말씀으로 큰니다.

▲李行願=禪院創設 당시 禪을 배우려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禪院에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 후 禪院이 너무 깊은 산속에 있어 찾아오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학생이 적어졌읍니다.

▲洪庭植=우선 다른 學生들에게도 禪院의 문호를 더 開放하여야 하겠읍니다.

▲司會=좋은 말씀입니다.

▲黃利善=禪院을 더 많이 協力해주었으면 좋겠

길

法句經에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 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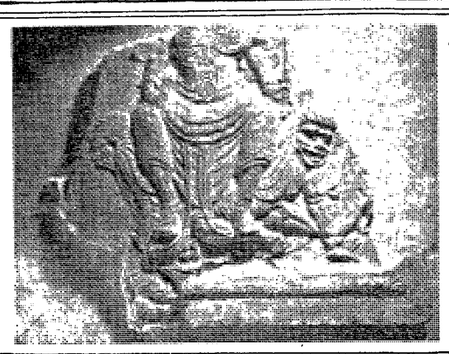
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善 即言即行
福樂自追 如影隨形
〈雙叙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不當愛所愛、亦莫有不愛
愛之不見憂、不愛亦見憂
〈愛好品에서〉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아아、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不寐夜長、疲倦道長
愚生死長、莫知正法
〈愚闇品에서〉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 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혀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냐.

何喜何笑、世常熾然
深蔽幽冥、不如求鎭
〈老耄品에서〉

佛教思想은 韓國思想의 風俗上의 諸儀式을 支配

金 東 華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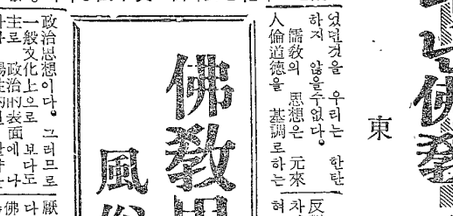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佛教가 傳來된 것은 明確하나 佛教수입以前(紀元前)에 있어서 우리民族의 文化가 어떠한 程度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文獻이 없다。 그러나 만약 佛教(西紀三七二年 수입)등 二大의 外國文化가 들어와서 우리民族의 文化의 精神을 左右하여온 것은 事實이다。 우리가 民族的見地에서 外國의 二大文化를 反省할때 그 한가지는 功罪가 相半한데 그 化가 탄생하기도 前에 中國의 文化가 수입되지 않았던들 우리의 文化가 어떠한 程度에 있었을것이냐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金富軾氏는 「三國史記」에 「新羅論贊에 中國의 儒教文化를 받아들인데 대해서 「以聖賢之俗革鴻荒之風化로 찬탄하고 있는바 이라고 하지 않을수없다。 한편 佛教의 思想은 무엇이 儒教의 思想과 다르냐 하는 것은 그 教義上 그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佛教思想은 韓國思想의 風俗上의 諸儀式을 支配

金 東 華

一、

우리나라에 佛教가 傳來된 것은 明確하나 佛教수입以前(紀元前)에 있어서 우리民族의 文化가 어떠한 程度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文獻이 없다。 그러나 만약 佛教(西紀三七二年 수입)등 二大의 外國文化가 들어와서 우리民族의 文化의 精神을 左右하여온 것은 事實이다。 우리가 民族的見地에서 外國의 二大文化를 反省할때 그 한가지는 功罪가 相半한데 그 化가 탄생하기도 前에 中國의 文化가 수입되지 않았던들 우리의 文化가 어떠한 程度에 있었을것이냐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金富軾氏는 「三國史記」에 「新羅論贊에 中國의 儒教文化를 받아들인데 대해서 「以聖賢之俗革鴻荒之風化로 찬탄하고 있는바 이라고 하지 않을수없다。 한편 佛教의 思想은 무엇이 儒教의 思想과 다르냐 하는 것은 그 教義上 그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佛教 나라나에 史神精

保 京 徐

우리가 全世界 여러 國家의 民族精神을 史的考察로 더불어 볼때 그나라 그 民族이 갖고있는 宗教를 보아서 그 民族의 生活하는 國家 年의 찬란한 文化、經濟、政治、其他 여러方面에 걸쳐 興隆繁榮하게 落하고마는것은 아니다。 佛教가 國家的으로 盛衰에 따라 그 運命을 같이 하여 왔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다。 佛教가 國家的으로 一般民心을 支配하는 勢力이 있는한 이러한 現象은 繼續될 것이다。 佛教는 人心을 다스리는 宗教이다。 民心을 敎化하고 精神指導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佛教의 役割은 時代、高麗時代를 통하여 政治에 利用되었을것이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우리 살길은 佛教精神

佛教盛衰、民族强弱表現

徐 京 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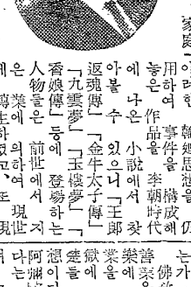
우리가 全世界 여러 國家의 民族精神을 史的考察로 더불어 볼때 그나라 그 民族이 갖고있는 宗教를 보아서 그 民族의 生活하는 國家 年의 찬란한 文化、經濟、政治、其他 여러方面에 걸쳐 興隆繁榮하게 落하고마는것은 아니다。 佛教가 國家的으로 盛衰에 따라 그 運命을 같이 하여 왔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다。 佛教가 國家的으로 一般民心을 支配하는 勢力이 있는한 이러한 現象은 繼續될 것이다。 佛教는 人心을 다스리는 宗教이다。 民心을 敎化하고 精神指導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佛教의 役割은 時代、高麗時代를 통하여 政治에 利用되었을것이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國文學上에나타난佛教

金 起 東

新羅歌謠에 淨土往生思想

因果輪廻思想은 李朝小說에



敎佛 나타난에 史神精

徐 京 保

우리가 全世界 여러 國家의 民族精神을 史的考察로 더불어 볼때 그나라 그 民族이 갖고있는 宗教를 보아서 그 民族의 生活하는 國家 年의 찬란한 文化、經濟、政治、其他 여러方面에 걸쳐 興隆繁榮하게 落하고마는것은 아니다。 佛教가 國家的으로 盛衰에 따라 그 運命을 같이 하여 왔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다。 佛教가 國家的으로 一般民心을 支配하는 勢力이 있는한 이러한 現象은 繼續될 것이다。 佛教는 人心을 다스리는 宗教이다。 民心을 敎化하고 精神指導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佛教의 役割은 時代、高麗時代를 통하여 政治에 利用되었을것이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그러나 佛教는 이와 反對로 그러한 特徵을 가지고서는 國史上 여러가지 점에서 佛教는 儒教의 思想은 元來 人倫道德을 基調로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不拘하고 그 功果는 실로 莫大하다。

당신의 約婚과 結婚 및 各種膳物은 實費와
信用本位로 奉仕하는 "보시장"으로!

本校 敎職員 및 卒業生 在學生에게 特別優待함

金銀寶石時計

寶時藏

서울特別市鍾路一街四四
新新百貨店西側電車停留場앞 TEL(73)6421
代表 朴 海 鎔

偉大한 先覺者 元曉

生涯와 그 思想

元曉의 人生觀

李箕永

…… 人生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世界를 어떻게 보았나? 그리고 人生을 어떻게 살았나? 하는것을 아는것은 우리 凡庸한 後學으로서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그까짓 것은 누구나 다 아는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까짓 것"이 "그까짓 것"이 아니다. 오직 꿈일뿐, 그꿈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깨어나려고 하는것이 오히려 꿈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人生이 아니냐? 그러므로 元曉가 人生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 人生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世界觀, 더 나아가서 眞理觀은 우리의 言語를 絶한 境地에 있으며 不可說, 不可思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世界觀이나 眞理觀을 抽象的인 觀念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어떤 固執된 形式으로 說明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人生을 人間의 마음의 問題로 보았다. 人間의 마음은 그 本源에 있어서는 一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一心은 決코 抽象的인 觀念이 아니다. 그는 人間의 마음을 두가지 面으로 보았다. 그 하나는 마음의 本源인 一心이 그대로 나타나는 面이요, 또 하나는 마음의 本源인 一心이 現實的인 條件에 制約되어 나타나는 面이다. 그는 人間의 마음을 이 두가지 面으로 보았다. 그리고 人間의 마음이 本源인 一心을 떠나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間의 마음은 本源인 一心과 現實的인 條件과의 統一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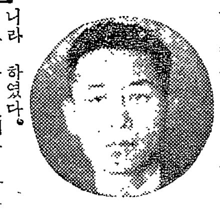
그는 人間의 마음을 이와 같이 보았기 때문에 人間의 마음을 떠나서 人間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人間을 人間의 마음을 떠나서

韓國佛教史上의
元曉·牧牛子의

普照國師의 思想

—特히 修心訣을 中心으로—

禹 貞 相



우리나라 佛教의 特徵이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恒常 佛教의 統一運動을 試圖한것을 들수 있는 것이다。 그 例를 들어보면 新羅 元曉大師의 和諍思想에 依한 通佛教라든지、高麗 大覺國師의 會三歸一의 天台思想에 依한 教禪統一佛教가 있고 普照國師의 定慧雙修思想에 依한 統一佛教、太古和尙의 禪門九山의 統合佛教、李朝 西山大師의 捨教入禪思想等에 依한 禪佛教統一等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思想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드문 佛教統一運動인 것이다。 그中에서도 牧牛子라 스스로 號한 普照國師는 禪宗을 主로 하고 教宗을 받아들여서 定慧雙修를 내세워 佛教統一運動을 펴나간 것이다。 이것은 大覺國師가 時代를 같이 한 것이다。 이것은 教를 主로하고 禪을 받아들여서 統一佛教를 펴한것과는 對照的인 것이다。

普照國師의 思想은 많은 著書를 通해서 力說되고 있으나 特히 佛教入門書「修心訣」은 그가 後學을 爲해서 보이는것을 中心으로 그 思想을 살펴보는 것도 興味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小考를 抄해 본다。 더욱이 現下 우리 教界가 더수선한 이때를 當해서 古祖師들이 統一佛教를 爲해서 心血을 기울여 努力한 자취를 살펴보는것도 無意味한 것은 아닐것이다。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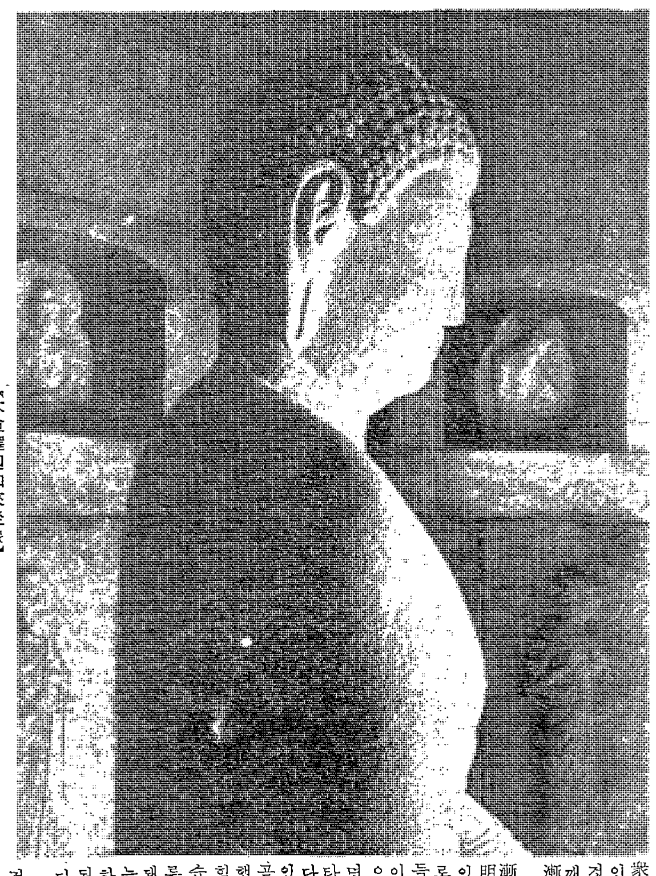
普照國師는 修心訣의 첫머리에서 우리 人生의 나아갈바 길을 明히 밝혀놓았다。 宇宙間에 生을 營爲하고 있는 人間의 모습을 四面이 불타고 있는 집속의 어린이로 規定하였다。 어린이의 불난 집속에서 不安과 苦痛을 現實에서 뛰어나올줄 모르는 것과 같은 우리 人間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苦痛을 免케 해주려고 方法을 提示하였다。 이것이 우리 凡夫의 나아갈 길인 것이다。 그 가르친 方法에 依하면 부처님을 求하는 길밖에는 없다 하였다。 부처님을 求하는 것은 깨친것을 求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求하고자 하려면 부처님이 곧 내 마음이라는것을 깨쳐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곧 부처님은 먼곳에서 찾을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은 肉體를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肉體는 地水火風等으로 이루어진 假合의 存在라 生도있고 滅도 있으나 眞心은 虛空과 같아서 끊어지거나 變化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였다。 그러나 人間은 마음이 곧 부처님이며 自性이 곧 眞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래 동안 헤매기를 法을 求하여 聖人에게 하기를 멀리 찾으려 하였다。

性밖에 眞法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를 求하는 사람은 어떠한 修道와 苦行을 하고 教理를 研究하여 부처님을 求하기를 自己 밖에서 求했으니 어찌 法을 알수 있으며 부처를 알수 있겠는가 하고 萬若에 自己마음밖에 부처님이 있고 自性밖에 法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며 스스로 피로울만 더할뿐 아무런 利益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普照國師는 修心訣의 첫머리에서 自己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간곡히 後學에게 깨우쳐 주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곧 普

自性밖에 眞法없어
—定과慧는 마음을 닦는唯一한두길—
깨침은 妄想 다한 곳에



【本尊釋迦如來坐像】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것을 第一主義로 그 要訣을 말한 것을 修心訣이라 하고 佛教의 入門인 同時에 佛教의 要諦를 明示한 것이다。 過去의 많은 聖人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며 現在 여러 聖賢도 이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며 未來의 佛教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와같은 法에 依해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後學에게 거듭 請하기를 佛教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를 마음밖에서 求하지 말고 自己마음이 곧 부처님인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照國師의 思想의 信仰이며 全體였다。 깨친 바를 말할수 있는 것이 國師는 이어서 眞理를 사람들이 쉽게 알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옛 故事를 一一히 引證하여 說明하였다。 그러고도 不足하여 오히려 마음을 밝히는 實際의 方法을 그 具體的으로 說明하였으니 그것이 頓悟漸修의 方法인 것이다。 이를 專門的인 述語로 말하면 先悟後修라는 것이다。

〈二〉

頓悟라는 것은 우리 凡夫가 迷하여 부처를 求하여 헤매다가 忽然히 훌륭한 指導者인 善知識의 指導를 받아 한 생각에 自己의 光明을 돌이켜 本性을 보니 本來로 煩惱가 없고 元來 生滅이 없는 것이 本性이고 부처와 털끝만큼도 道理가 다르지 않는 것을 깨치는 것을 頓悟라 하였다。 漸修라는 것은 本性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는 것을 깨쳤으나 오랫동안 익힌 習氣는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 故로 깨친 本性에 依하여 漸漸 닦아 익힌 習氣를 除하여 聖胎를 기르는 것이다。 오래오래 하면 畢竟에는 聖人이 된다는 것을 漸修라 하였다。 이것을 다시 비유하여 說明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날때부터 눈、귀、코、입、몸뚱이 갖추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다。 큰 사람과 다름이 없으나 그 힘이 充實치 못하였다。 그래서 오랜 기간 힘이 갖추어야 되는 것같은 理致와 같다고 하였다。

〈三〉

그러나 普照國師는 마음이 곧 부처님인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마음은 空寂靈知의 마음이라 하였다。 모든 法은 꿈과 같으며 幻化와 같아서 妄念이 本來 고요하고 塵境이 本來 空한 것이다。 諸法이 모두 空한 곳에 靈知가 어둡지 않으니 이 空寂靈知의 마음이 곧 네 本來面目이며 三世諸佛과 歷代祖師와 天下善知識이 密密히 서로 傳한 法印이다。 萬若 이 마음을 깨치면 階梯를 밟지 않고 바로 佛地에 올라가며 걸음마다 三界를 뛰어 넘어 大丈夫가 大自由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本來面目이 곧 空寂靈知한 마음이며 그것을 깨친 것이 頓悟라 하였다。

오랜 習氣를 漸漸 닦아서 聖人이 된다고 하였으니 그 닦는 方法은 定과 慧의 두가지라 하였다。 그래서 普照國師는 마음을 닦는 길은 定慧밖에 없다고 하였다。 定은 體요 慧는 用이라 하였다。 體와 用은 一體이니 곧 定은 慧를 떠나지 않고 慧는 定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定慧雙修를 力說하였으며 이와같이 修心訣을 中心으로 普照國師의 思想을 살펴보았으나 더 살펴볼 것이 많으나 이만 줄인다。〈글쓴이·佛教大學教授〉

牧牛子의 生涯와 著書

—— 權 相 老 ——

우리나라 佛教를 總評한다면 그 全盛期는 오직 新羅時代뿐이다。 왜냐하면 教宗에 있어서는 元曉、義湘、大賢등이 있었고 密教도 統一事業에 協贊이 적지 않았으며 禪宗도 九山門이 列立하여 玄風을 크게 날리었으므로 新羅의 눈부시는 文化의 産母노릇을 했지마는 高麗로 넘어오면서는 道詵國師의 地理術이 國家를 嚮導하는 役割의 先모리군이 되었었고 稗補明堂說과 八關齋、燃燈會를 비롯하여 許多한 道場·法席等으로 쏠아지고 實際의 佛教는 힘쓰지 아니 했으니 그러므로 그 初期에 있어서는 擧國的으로 받들어 오던 新羅의 餘烈의 힘으로 지내 왔었고 中葉부터는 佛教의 內部가 完全히 腐敗와 墮落을 露呈했으니 그것은 무엇으로 證明하느냐 하면 禪·教·乃至 密까지도 新羅에 比해서 可히 擬議할만 한것이 없고 겨우 大覺國師 한분을 代表로 내세울만 하였다。 그때 僧伽들은 다만 國家에서 자주 차려주는 僧齋에만 배부르고 實修가 없었으므로 禪宗은 더욱이 衰殘했던 모양인데 法運이 남아있으므로 佛日普照國師가 出世했으니、그는 정말 如來의 심부름꾼이오、菩薩이 오신 분이다。 만일 普照國師가 아니었드라면 高麗五百年의 佛教는 몹시 寂寞할뿐 아니라 名色이 없을 뻔하였다。 땅에 떨어진 禪風을 다시 擧揚했으니 禪宗의 中興祖라고 하기에는 疑心도 없지마는 여태까지 不立文字하던 家風을 一變하여 華嚴으로 발판을 삼고 그위에 祖燈을 밝혔으니、禪宗의 革命家라 하기에도 조금도 주저를 용납지 않는다。 그의 生涯는 一生을 통하여 禪의 生活뿐이다。

오직 奉宣하고 지은 金君綏의 碑銘에 依하면 어렸을 때에 잔病을 앓고 일새없이 祈禱하며 그 아버지가 病이 없어지면 出家시키겠다는 發願을 하였다 그만 病이 없어지고 八歲에 出家했으며 元來에 自證自禪하였으며 學은 귀하게 여기는 一定한 先生에게 배우지 않고 오직 德있는 이를 따랐다는것이다。

高麗佛教의 象徵
—珍貴한古寶完本이 오늘날까지保存—
禪風을 다시擧揚한 中興朝禪宗

二五歲에 禪科를 合格하고 昌平 清源寺로 가서 있었다。 하루는 우연하게도 六祖壇經을 보다가 그속에 쓰여있는 『眞如自性起念 六根雖見聞覺知 不染萬像 而眞性自在』라는 대문을 보고는 놀라도록 즐거워서 마음에 얻은것이 있었다니、六祖以後에 壇經을 본 사람이 相當히 많겠지마는 이 句節에서 깨달은이 다시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야말로 不傳之妙를 얻은것이 釋尊의 月明星을 보고 迦葉의 破顏微笑와 六祖의 「應無所住 而生其心」을 들은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때부터 名利를 버리고 專心하다가 二十八歲에 下山하여 普門寺에 들어가서 大藏經을 읽고 華嚴論을 더욱 깊이 信心이 發하였다。

老했다。 때마침 得才長가 八公山居祖寺에서 請하므로 그리로 가서 여러사람과 定慧를 닦았다。 31歲에는 智異山上無住庵으로 들어가서 大慧禪師의 書狀을 읽고서 郎徹하게 깨달았으니 『普門寺에서부터 10餘年을 해도 工夫를 闕함이 없었으나 가슴에 무엇이 걸린것 같더니 語錄을 보는때에 忽然히 눈을 뜨고 가슴에 거친 것이 없어졌다』고 말씀했다。 33歲에 松廣山吉祥寺로 옮겨 安居하여 曹溪山修禪社로 이름을 고치고 11年동안 宗風을 드날렸으며 熙宗이 친히 曹溪山修禪社라 題額하여 보냈다。 그가 指導하는 三門이 있으니 〈一〉惺寂等持門이오 〈二〉圓頓信解門이오 〈三〉徑截門이니 三門의 意義는 지금 紙面이 許諾하지 않으니 설명을 그만 두거니와 누구나 三門直指를 찾아보면 알 것이다。

熙宗六年 庚午 5月27日 입적하니 享壽는 53年이오 僧臘은 36이라 하였다。 世壽 53年에 法臘이 36年이나 中年에 入寂하였으나 그가 남긴 法은 길이 後世에 傳하는 것이다。

오직 宗師의 뜻에 따라 生活이 禪이고 禪이 곧 生活이었다。 相續하여 그 門下에서 16國師가 다 世稱하며 後代까지 계승되었다。

非常한 國師의 偉大한 德이 그 門弟子의 많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著書로는 △修心訣 1卷 △定慧結社文 1卷 △眞心直說 1卷 △誠初心學人文 1卷 △看話決疑論 1卷 △圓頓成佛論 1卷 △念佛要門 △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 等이 있다。

牧牛子의 節要는 作故하기 一年前에 著述한 것으로 그의 晩年의 最高著述이며 高麗의 普照國師가 似而非禪을 批判한 것이다。

所著도 百餘卷이 있었다 하나 지금 三國遺事에 남아있는 것은 몇卷 되지 않았다。 日本에 完本이 傳하던것이 있어 千峯集도 均如首座의 傳한 것이 알려졌다。

牧牛子의 批判精神

朴 性 焙

佛教는 단순히 信仰을 要求하는 宗教가 아니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眞理의 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깨닫는다는것을 一生一大의 急先務로 삼는 禪宗에서는「直指人心 見性成佛」을 가르치고 達磨大師의「不立文字」라는 말을 金科玉條로 내세운다。

立文字의 禪風이 登場했다는 것은 實로 革命的인 새로운 思潮가 아닐수 없었다。 이리하여 禪은 佛教의 여러 宗派中에서 가장 自由롭고 시원스러운 印象을 주었으며 西洋사람들에게도 자못 人氣가 大端하다고 한다。 世上에서 좋다고 所聞난것 치고 假짜의 橫行이 없는 것은 없다。 佛教의 여러 宗派中에서도 禪宗만큼 似而非가 많고 病弊의 露出이 甚한 것도 따로 없다。

그의 節要에서 그 當時 修道者들의 잘못된 傾向을 透徹한 批判精神으로 날카롭게 그 焦點을 맞추고 있다。 牧牛子의 批判의 焦點은 當時 修道者들이 正統至上主義에 사로잡혀 있다는 點과 또 不立文字를 曲解하여 文字가 지닌 正當한 意義마저 忘却하고 있다는 點에 對해서이다。 牧牛子에 依하면

內的인 缺陷과 自派속에 있는 不誠實한 橫暴를 비롯한 似而非의 사람에 있다。 中國의 禪宗은 六祖慧能에 이르러 크게 번창하였다。 그뒤 六祖의 門下에서 南嶽의 懷讓系統은 不立文字의 正統의 嫡子로 待接을 받았고 荷澤의 神會系統은 文字를 쓰는 것이라하여 庶子로 取扱을 당했다。

가 決擇이 高明하고 了然하여 以上 더 明白할수가 없으니 그가 가르친 바를 간추려 修道上의 거울(龜鑑)을 삼겠노라」(意譯)고하였다。 牧牛子에 있어서는 嫡庶의 區別이나 正統 非正統의 區別따위가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그러나 世上에서 庶子取扱 當하는 사람의 것이라 하여 無視하지 않았다。

道者의 態度에서 가장 삼가야할 點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宗派만을 正統이라 하고 다른 宗派를 非正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自派는 正統至上主義에 빠져 他派에 對한 是非가 生기고 妄評이 생겨나며 끝내는 衰退하고 마는 것이다。 自派에 對立되는 것은 他派라 하여 無視하고 他派의 長點을 取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自派의 滅亡을 뜻한다。

그러나 牧牛子는 이러한 風潮에 逆流하여 「荷澤의 神會가 大祖의 嫡子는 못되었다 하더라도 悟解가 果敢하게 밝았다」하고 取扱을 當했던 神會의 思想을 높이 評價하였다。

勿論 牧牛子는 文字에 執着하는 것을 警戒하였다。 文字를 떠나서 깨달음을 얻을수는 없지만 文字에 執着하고 修道者들이 文字를 모두 버린다는 것은 虛送치는 것이라 하였다。 文字의 分明한 뜻을 言教에 依해서 깨닫고 밝혀야 하며 그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면 一如實한 生을 얻을 것이라 하였다。

牧牛子의 批判精神의 根據는 頓悟漸修의 思想과 定慧雙修에 있다。 당시의 禪客들이 自己의 깨달음만을 貪하여 衆生濟度에 疏忽히 한 點을 指摘하고 自然히 깨달음은 衆生濟度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글쓴이·佛教大學 講師〉

釋迦世尊降誕第2990回

慶 祝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李曉峰
宗會議長 李靑潭
總務院長 金法龍
監察院長 朴文星

總務院

總務部長 孫慶山
教務部長 李行願
財務部長 姜昔珠
社會部長 金南鉉

東國大學校 同窓會

會長 愼京勳

東國劇會

代表 兪賢穆

東友體育會

會長 尹吉九

東女會

會長 尹乙順

韓國半跏思惟像硏究의 新段階

高句麗金銅像의 出世를 契機 삼아

黃壽永

高句麗金銅半가思惟像
一(國寶118號)一
(土出里川平壤)

佛敎初傳의 三國時代에 있어서 韓國佛敎의 初傳은 高句麗로 比定되는 北의 遼東地方에 먼저 이르렀다는 것이 通說이다。그러나 이 地域에 있어서의 佛敎文物의 交流相은 아직 明確하지 못하다。그것은 現在 遺物이나 遺蹟이 거의 發見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一)

三國時代의 佛敎文物은 北의 高句麗로 比定되는 金銅半가像의 出土가 가장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그것은 昨年에 처음으로 國內에 公開된 國寶 一一八號 現在 指定番號 傳平壤出土 金銅半가像이 있었기 때문이다。이같은 뛰어난 作品이 어떠한 經緯로 發見되었는지 아직 明確하지 않으나 그 出土地가 平壤이라는 點에서 高句麗의 作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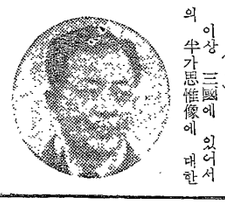
이 半가像은 높이 一九·五센티로 三國을 통하여 유례 드문 優秀한 作品이다。이같은 뛰어난 作品이 어떠한 經緯로 國內에 公開되고 또 어떠한 傳來를 가졌는지 아직 明確하지 않으나 그 出土地가 平壤이라는 點에서 高句麗의 作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二)

三國時代 佛敎思惟像의 樣式系統을 보면 크게 나누어 두 가지 系統이 있었다。그 하나는 北魏式의 變形을 가진 것이고 또 하나는 北齊式의 變形을 가진 것이다。그런데 이 半가像은 北齊式의 變形을 가진 것이다。

(三)

高句麗像은 百濟·新羅의 交流史에 있어서도 重要視되어야 할 것이며 三國의 中 가장 主尊으로 삼을 수가 있으므로 이 半가像을 比重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이같은 뛰어난 作品이 어떠한 經緯로 國內에 公開되고 또 어떠한 傳來를 가졌는지 아직 明確하지 않으나 그 出土地가 平壤이라는 點에서 高句麗의 作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金銅半가思惟像 (國寶83號) 〈德壽宮美術館소장〉

佛敎初傳의 硏究에 대한 考察緊要

佛敎文物의 交流相에서 發達의 特色은 半가像의 形式

既存像에 대한 佛敎文物의 交流相

李 基 白

界敎佛의 부터로 滯沈

現代化의 前提要件

草改的意義의 合理와 參與의 大衆

張 庚 鶴

求道者의 姿勢

現代化問題와 關聯하여

洪 庭 植

佛敎의 現代化란 말은 佛敎는 아직 現代化되어 있지 아니함을 意味한다。佛敎가 우리나라에 輸入된 이후 우리 生活과 直接 間接으로 깊은 交涉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우리의 歷史와 文化에 있어서 그 時代의 時代精神에 알맞게 組織된 그대로를 繼承하고 있을뿐 新鮮하고 生氣潑剌한 現代化 改新作業을 斷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新羅時代나 高麗時代 或은 李朝時代의 佛敎는 그 時代의 時代精神에 適應하게 이루어 왔던 것이다。그러나 現代는 그 主導的인 制服을 입고 있는 民族과 國家의 光榮과 自尊을 確保하는 人物들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三國時代의 佛像造形의 發達은 特色있는 半가像의 流行과 그 發達은 이 樣式의 變形을 가진 것이다。그러나 이 半가像의 系譜를 찾는 것은 오늘날의 時勢에 合致하는 美國에서 한달에 50弗로 奉仕하는 修女들의 경우가 異彩를 느끼게 하고 있다。修女들이 「古代的」인 制服을 입고 學校를 구경한 일이 있었다。50弗가량이라고 하였다。金順德이라고 하였다。그 修女들의 形而上學的인 思惟는 現代人의 感覺을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 思惟는 現代人의 感覺을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 思惟는 現代人의 感覺을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金銅半가思惟像 (國寶83號) 〈德壽宮美術館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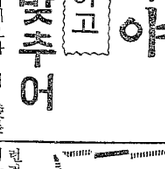
改新作業이 缺如

出家·在家衆은 本質喪失

佛敎人은 本然의 姿勢지켜야

韓 相 琓

心學에 對한 小考



元曉 (617—686) 義天 (1054—1101?) 知訥 (1157—1234) 李太祖 (1335—1408) 金時習 (1435—1493) 普雨 (?—1565) 盧守愼 (1515—1590) 休靜 (1520—1604) 趙太能 (1563—1649) 淸虛 (1520—1604) 靈機 (1581—1644) 無竟子秀 (1664—1737) 龍潭 (1709—1762) 默庵 (1717—1790) 秋波 (1718—1774) 鏡峻 (1743—1804) 義沼 (1745—1796) 知訥 (1759—1832) 曇無 (1737—1832)

科學的根據있어야

「마음」의 分析은 再檢討하고

現代哲學과 발맞추어

李 鍾 勳

佛敎現代化의 前提要件

草改的意義의 合理와 參與의 大衆

張 庚 鶴

부원모집공고

금번 佛敎硏究部에서는 우리民族속에 흘러내리는 思想과 信仰의 主流인 佛敎를 硏究하고 眞理의 生活을 하고저하는 佛徒들 募集하오니 뜻있는 분은 많이 入部하여주시기바랍니다

記

一、募集期間…一九六四年五月十九日—二十七日
一、願書接受處…禪武部道場(佛敎文化財展示場)
一、入部式場所…五月三十日午後二時大學禪院

東國大學校 佛敎硏究部

東國寮內

紛失廣告

本籍 서울市鍾路區 孔雀洞一七五—二一八
現住所 서울市永登浦區 梁津洞山七七
姓名 趙敎男 (경찰행정학과二年)
一九四四年十二月二十三日生
學生證·구독권·등록필증 신분증을 五月八日 校庭에서 紛失

本籍 全北南原郡南原邑 昌川洞里一六九
現住所 서울特別市城北區 貞陵洞四二二의九
李根秀 (경영학과一年)
一九四四年十一月二十六日生
學生證을 五月九日 校內에서 紛失함

本籍 서울市鍾路區 蓮建洞 井洞一二四番地
現住所 서울市城北區貞陵洞四二二의九
李根秀 (경영학과一年)
一九四四年十一月二十六日生
學生證과 영어등록필증을 五月九日 校內에서 紛失함

本籍 京畿道仁川市松峴洞31
現住所 京畿道仁川市松峴洞49
楊德模 (經濟科一年)
一九四五年三月十五日生
學生證을 四月29日 校內에서 紛失

本籍 서울特別市鍾路區 新門路1街200
現住所 서울特別市東大門區祭基2洞228
南重赫 (經營科1年)
一九四五年10月26日生
學生證을 4月12日 校內에서 紛失

本籍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의118
現住所 〃 西大門區 巡和洞52의1
吳承泰 (경제科4年)
一九三八年一月二六日生
學生證및학우부를四月二十九日 교내에서 紛失하였음

本籍 서울市鍾路區蓮 井洞一二四番地
現住所 서울市城北區貞陵洞四二二의九
李根秀 (경영科一年)
一九四四年十一月二十六日生
學生證과 영어등록필증을 五月九日 校內에서 紛失함

本籍 京畿道仁川市松峴洞31
現住所 京畿道仁川市松峴洞49
楊德模 (經濟科1年)
一九四五年3月15日生
學生證을 4月29日 校內에서 紛失

本籍 慶北榮州郡安定面 新田里6
現住所 서울特別市城東區 弘益洞106의6
李英一 (經營科1年)
一九四四年6月19日生
學生證을 5月8日 自宅에서 紛失

本籍 慶南河東郡靑岩面弓項里
現住所 麻浦區新孔德洞十九 柳水鎬 (經營科一年)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日生
學生證을 五月五日 校庭에서 紛失

本籍 慶南河東郡岳陽面新興里
現住所 서울特別市城北區 宁宁洞四八七
孫相吉 (佛敎科一年)
一九四一年四月四日生
學生證 兵役申告필증 五月八日 서울에서 紛失

本籍 慶北永川郡新寧面 雉山洞一四二九
現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 碌번洞一四二~二三號
沈龍淨 (經營學科一年)
一九四二年八月二六日生
學生證을 五月七日 本校內에서 紛失

現代人으로 佛敎를 理解하려는분은 이 한 책으로!
初學者를 爲한入門書

東國大學敎授 黃晟起 著 定價200원

〈新刊〉

佛敎學槪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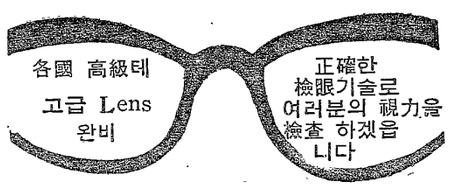
本書는 著者가 일찍 몸을 佛門에 붙여 佛敎의 온奧를 窮盡하고 多年間 이를 敎壇에서 講義한 內容을 初學者를 위해 出版한 것이다

特色 本書는 佛·法·僧三寶으로 全敎理를 總網羅했고 佛敎敎理의 複雜하고 難解한點을 누구나 理解하기쉽게 純우리말로 써어 있음

發行社 佛敎思想社 電話(3)4987

천상당안경원

最新 獨逸製 檢眼機 設置



東大生에게 特別割引!

종로3가37번지
TEL (74) 3752

彌勒石佛과 三層石塔을 發見

新羅때것 추정 忠北中原郡서 찾아

史學會古蹟踏査

漢江流域

이번 古蹟踏査는 주로 無極을 해서남도 由緒깊은 여러 古蹟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敎授님들과 計劃을 세워 漢江流域의 竹嶺과 鳥嶺을 넘어서 江流域으로 해서서 우리 나라의 古蹟遺物의 係라 자연 漢江(驪江)流域의 神勒寺, 竹嶺넘어 閑慶의 鳳厳寺를 踏査하고 아울러 拓本도 하기로 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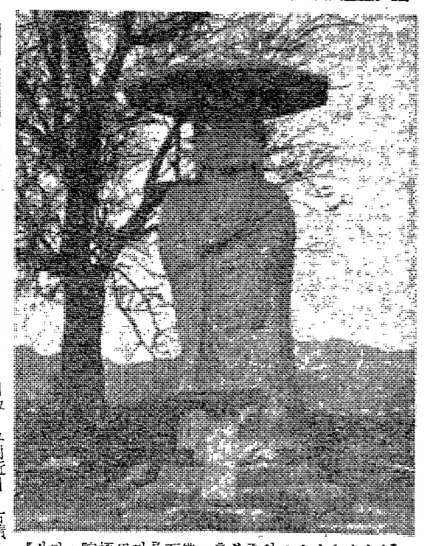
漢江은 우리나라 中心文化圈의 血脈을 이루고 古代로부터 매우 重要한 江이었다。三國(高句麗、新羅、百濟)이 이 漢江流域을 차지하려고 血眼이 되었던 것도 즉 新羅가 三國統一을 하게되는 그바탕도 이미 眞興王때 竹嶺을 넘어 漢江上流를 新羅가 차지하게 되었기에 由來 世朝鮮의 發展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高麗때엔 忠州에 德興 倉이라는 漕倉이 있어서 忠淸道、江原道 方面의 流域州郡으로부터 租稅를 徵收하여 管轄했었는데 李朝에 들어와서는 太宗11年에 慶源倉을 忠州에 增設하여 慶尙道의 貢賦 租稅등을 모두 鳥嶺을 넘어서 이곳에 直納케 하고여 江流域으로 해서서 울을넘는 코스를 擇하게 되었다한다。

우리 나라의 古蹟遺物의 거의가 다 寺刹과 關係가 있었음을 이번 踏査하고 새삼 느끼게 하였다。

우리나라 中心文化圈의 重要한 古代로부터 매우 交通路이었다。三國(高句麗、新羅、百濟)이 이 漢江流域을 차지하려고 血眼이 되었던 것도 즉 新羅가 三國統一을 하게되는 그바탕도 이미 眞興王때 竹嶺을 넘어 漢江上流를 新羅가 차지하게 되었기에 由來 世朝鮮의 發展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高麗때엔 忠州에 德興倉이라는 漕倉이 있어서 忠淸道、江原道 方面의 流域州郡으로부터 租稅를 徵收하여 管轄했었는데 李朝에 들어와서는 太宗11年에 慶源倉을 忠州에 增設하여 慶尙道의 貢賦 租稅등을 모두 鳥嶺을 넘어서 이곳에 直納케 하고여 江流域으로 해서서 울을넘는 코스를 擇하게 되었다한다。

우리 나라의 古蹟遺物의 거의가 다 寺刹과 關係가 있었음을 이번 踏査하고 새삼 느끼게 하였다。

우리나라 中心文化圈의 重要한 古代로부터 매우 交通路이었다。三國(高句麗、新羅、百濟)이 이 漢江流域을 차지하려고 血眼이 되었던 것도 즉 新羅가 三國統一을 하게되는 그바탕도 이미 眞興王때 竹嶺을 넘어 漢江上流를 新羅가 차지하게 되었기에 由來 世朝鮮의 發展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高麗때엔 忠州에 德興倉이라는 漕倉이 있어서 忠淸道、江原道 方面의 流域州郡으로부터 租稅를 徵收하여 管轄했었는데 李朝에 들어와서는 太宗11年에 慶源倉을 忠州에 增設하여 慶尙道의 貢賦 租稅등을 모두 鳥嶺을 넘어서 이곳에 直納케 하고여 江流域으로 해서서 울을넘는 코스를 擇하게 되었다한다。



【사진・院坪里미륵石佛=충북중원군신니면원평리에 있다】

新羅때것? 彌勒佛

忠北中原郡서 찾아

古來의 中心文化圈

곳곳에 寺刹遺蹟 수두룩

四大史庫의 하나 忠州에

總長님으로부터 激勵의 말씀과 注意事項도 있어서 큰 成果를 거둘수 있었음에 感謝를 드리고 또한 이번 踏査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便宜를 보아주신 忠州市長님과 忠州市民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忠州・丹陽

第一日 豫定이었던 神勒寺에 차질이 생겨 忠州에 들어와 忠州에서 一泊하고 第二日 忠州를 出發하여 丹陽으로 해서 小白山 國望峰을 넘어 浮石寺에 이르러 一泊하고 第三日 浮石寺를 出發하여 竹嶺을 넘어 丹陽에 들어서기 前에 漢江을 옆에끼고도는 것이 보였는데 자못 아름다웠다。展風처럼 펴놓은 것같은 奇巖絶壁이 계곡을 이루고 굽이 굽이 굽어진 江길은 참으로 絶景이라 하겠다。

丹陽에서 竹嶺을 넘었다。안개가 자욱했고、내리 볼비도 주룩주룩 내리기까지는 꼭 初冬과 같았다。丹陽에서부터 12粁이라 한다。여기서 9粁가량 내려가면 조용한 邑인 豊基에이른다。豊基에서 浮石寺로갔다。途中 順興面에 자리잡고있는 紹修書院을 찾았다。

紹修書院은 高麗儒學者의 代表者인 文成公 安向을 奉祀한 書院으로서 우리나라 代表的인 書院의하나이다。처음 李朝中宗37年에 이곳 豊基郡守이던 周世鵬이 文成公을 모시기위하여 祠堂을세우고 그옆에 白雲洞書院을 만든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書院의 嚆矢가되고 地에 書院이 盛況케되었다한다。

그후 明宗5年에 역시 이곳郡守로 赴任한 退溪先生의 上言에 의하여 紹修書院의 勅額을下賜하는同時에 奴婢와田結도 給與되었다。이른바 賜額書院은 全國的으로 整理됐을때에도 남게되어 오늘날까지 大體로 옛모습을보존하고있다。文廟 明倫堂 至樂齋를비롯하여 直方 齊、日新齋、景敬亭등의 建物이있고 書院옆에는 中學校가있다。옛날부터 敎育事業과 關係깊은곳이라는것을 알수있었다。

그런데 其實 이터는 高麗末까지는 宿水寺라는 寺刹이 있었던곳 같은 설설한表情을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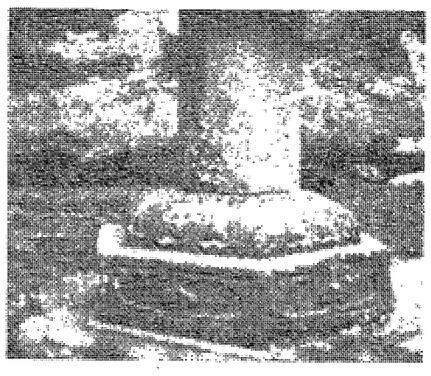
榮州郡浮石面北枝里에 있는 이 浮石寺에 이르러서는 敎授님들도 무엇인지 잊은것 같이 興奮과 因緣이 깊었던 寺名이 殘存함을 보고 感慨無量한 듯 하였다。

特히 이塔婆가운데에 創建者인 義湘大師가 建立하지않는 敎訓을 생각하고 또 이밖에 無量壽殿의 彌陀如來像과 壁畵도 보고싶었으나 날이 저물어 못하게 되었으니 失望이 크지않을수 없었다。

豊基로 내려와 安東으로 내려가서 有名한 古塔을보고 安東郡에서는 吉安面 南後面 一直面등에 各各 古塔이 있다하나 무엇이라 하여도 市內의 두塔이 代表的이다。

安東가까이 들어올무렵 洛東江의 上流의한 줄기를 따라갈 때에는 역시 景致가 아름다웠다。和暢한 봄날의 햇빛을 쪼이며 두塔의古塔을 바라보았다。하나는 驛에서 멀어진 鐵路옆에 있었다。非生産的인 古蹟으로서 統一期 以後의 新羅古塔은 建築的 安定感이 없고 너무 날씬하여 均衡을 잃은 感이 있다。

安東가까이 들어올무렵 洛東江의 上流의한 줄기를 따라갈 때에는 역시 景致가 아름다웠다。和暢한 봄날의 햇빛을 쪼이며 두塔의古塔을 바라보았다。하나는 驛에서 멀어진 鐵路옆에 있었다。非生産的인 古蹟으로서 統一期 以後의 新羅古塔은 建築的 安定感이 없고 너무 날씬하여 均衡을 잃은 感이 있다。



【사진・院坪里미륵石佛=충북중원군신니면원평리에 있다】

李朝書院의 효시

紹修書院

安東엔 最初의 塼塔도

特히 이塔婆가운데에 創建者인 義湘大師가 建立하지않는 敎訓을 생각하고 또 이밖에 無量壽殿의 彌陀如來像과 壁畵도 보고싶었으나 날이 저물어 못하게 되었으니 失望이 크지않을수 없었다。

豊基로 내려와 安東으로 내려가서 有名한 古塔을보고 安東郡에서는 吉安面 南後面 一直面등에 各各 古塔이 있다하나 무엇이라 하여도 市內의 두塔이 代表的이다。

安東가까이 들어올무렵 洛東江의 上流의한 줄기를 따라갈 때에는 역시 景致가 아름다웠다。和暢한 봄날의 햇빛을 쪼이며 두塔의古塔을 바라보았다。하나는 驛에서 멀어진 鐵路옆에 있었다。非生産的인 古蹟으로서 統一期 以後의 新羅古塔은 建築的 安定感이 없고 너무 날씬하여 均衡을 잃은 感이 있다。

【사진・院坪里미륵石佛=충북중원군신니면원평리에 있다】

古來의 中心文化圈

곳곳에 寺刹遺蹟 수두룩

四大史庫의 하나 忠州에

總長님으로부터 激勵의 말씀과 注意事項도 있어서 큰 成果를 거둘수 있었음에 感謝를 드리고 또한 이번 踏査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便宜를 보아주신 忠州市長님과 忠州市民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忠州・丹陽

第一日 豫定이었던 神勒寺에 차질이 생겨 忠州에 들어와 忠州에서 一泊하고 第二日 忠州를 出發하여 丹陽으로 해서서 小白山 國望峰을 넘어 浮石寺에 이르러 一泊하고 第三日 浮石寺를 出發하여 竹嶺을 넘어 丹陽에 들어서기 前에 漢江을 옆에끼고도는 것이 보였는데 자못 아름다웠다。展風처럼 펴놓은 것같은 奇巖絶壁이 계곡을 이루고 굽이 굽이 굽어진 江길은 참으로 絶景이라 하겠다。

丹陽에서 竹嶺을 넘었다。안개가 자욱했고、내리 볼비도 주룩주룩 내리기까지는 꼭 初冬과 같았다。丹陽에서부터 12粁이라 한다。여기서 9粁가량 내려가면 조용한 邑인 豊基에이른다。豊基에서 浮石寺로갔다。途中 順興面에 자리잡고있는 紹修書院을 찾았다。

紹修書院은 高麗儒學者의 代表者인 文成公 安向을 奉祀한 書院으로서 우리나라 代表的인 書院의하나이다。처음 李朝中宗37年에 이곳 豊基郡守이던 周世鵬이 文成公을 모시기위하여 祠堂을세우고 그옆에 白雲洞書院을 만든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書院의 嚆矢가되고 地에 書院이 盛況케되었다한다。

그후 明宗5年에 역시 이곳郡守로 赴任한 退溪先生의 上言에 의하여 紹修書院의 勅額을下賜하는同時에 奴婢와田結도 給與되었다。이른바 賜額書院은 全國的으로 整理됐을때에도 남게되어 오늘날까지 大體로 옛모습을보존하고있다。文廟 明倫堂 至樂齋를비롯하여 直方 齊、日新齋、景敬亭등의 建物이있고 書院옆에는 中學校가있다。옛날부터 敎育事業과 關係깊은곳이라는것을 알수있었다。

그런데 其實 이터는 高麗末까지는 宿水寺라는 寺刹이 있었던곳 같은 설설한表情을 띄었다。

高麗末까지는 宿水寺라는 寺刹이 있었던곳 같은 설설한表情을 띄었다。

榮州郡浮石面北枝里에 있는 이 浮石寺에 이르러서는 敎授님들도 무엇인지 잊은것 같이 興奮과 因緣이 깊었던 寺名이 殘存함을 보고 感慨無量한 듯 하였다。

特히 이塔婆가운데에 創建者인 義湘大師가 建立하지않는 敎訓을 생각하고 또 이밖에 無量壽殿의 彌陀如來像과 壁畵도 보고싶었으나 날이 저물어 못하게 되었으니 失望이 크지않을수 없었다。

豊基로 내려와 安東으로 내려가서 有名한 古塔을보고 安東郡에서는 吉安面 南後面 一直面등에 各各 古塔이 있다하나 무엇이라 하여도 市內의 두塔이 代表的이다。

安東가까이 들어올무렵 洛東江의 上流의한 줄기를 따라갈 때에는 역시 景致가 아름다웠다。和暢한 봄날의 햇빛을 쪼이며 두塔의古塔을 바라보았다。하나는 驛에서 멀어진 鐵路옆에 있었다。非生産的인 古蹟으로서 統一期 以後의 新羅古塔은 建築的 安定感이 없고 너무 날씬하여 均衡을 잃은 感이 있다。

【사진・院坪里미륵石佛=충북중원군신니면원평리에 있다】

竹嶺・豊基

丹陽에서 竹嶺을

砲聲·아듀

金南雄

一

進軍해 오고 있었다」
북을 치며 나팔 불며
가슴이
성나게 밀리는 호흡
지극히 귀여운 깃발 휘둘며
5月이 그렇게 오고 있었다」

二

自由。
앞줄엘
당신이 서서
목타는 祖國을 불사르려했다。」
거리엔 불경기는 忍苦의
숨결。
땡들이 냅다놀라 깨던건
한번쯤 있을만한 일였겠건만。」
한나절 수척한 時間은 왜?
그냥 멀건히 눕는 것이다
수술은 모대체
어쩔 것인가。」

三

火氣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을
귀 먹었던가
생각하면 부르르 떠는 주먹이
핑망하구나。

四

모느냐 너는 지금
氣勢가 당당하게 오고 있는
노엘 하며 춤을 추며
뛰며 미치게
얼마나 바라던 것이던가를
우린 그저 이렇게
인살 보내마。

<國文科>

等身佛

姜熙根

그대 앉은 자리가 높은데
얼굴로 옮아온 몸둥아리 天性이
하도 정거라운지 해질 무렵 불은
술잔을 나는 주검입니다。

어머니 결을 떠남데로
자라는 모습이
저 눈은 자그만 所見으로 추엉된
살아있는 우리의 웃음으로 남아 있고
피가 들어와 제자리에 역양이 되는
일술은 바랄부는 노란 하늘을 닮아
있읍니다。

부는 소신의걸이、타도록 말라버린
인간의 下體에 靈魂이 내리는
오늘의 기도에 대화를 얻어 울은
의곽에 자유의 몸짓처럼 숨쉬는
石像보다 그대의 새철이 간 것입니다。」
어찌다、결심없는 찬가의 하품에서
일찌기 情을 버린 성질로
그대는 이미 강물처럼 먼 手足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그대의 보다 차운 몸짓은
수집은 데 가리운 살결을 和答하는
우리의 영원입니다。

<國文科>

星巨界育教治政宗

고희기시고 을리엘·T·S

人生事完蓋棺後라디니

姜慧遠

—梵山스승님 四九젯날의 日記—

일것이다。 知嘉父才가그
어떤 다른 돌 慰安도 메
뚜라비의 름엘 불소
모없다」 午後 1時라
다리 만지기에 不過
한 것이니늘 멘히累
저만 무슨 심부름이
라도 있으려니하여 10
가 될알아서도 情
時가 되자 찢어진비
니루 雨傘 忽
과함께 然
忽普溪寺 로갔다。 가시 스
에 못있어 橫說하며
在에對한 思惟關係
의題를究明 結集하려
던學者들 東西의哲
學一實 蓄穢를주
어보았다 吉今과
를 쓴다해도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不過
한 것이니늘 멘히累
저만 무슨 심부름이
라도 있으려니하여 10
가 될알아서도 情
時가 되자 찢어진비
니루 雨傘 忽
과함께 然
忽普溪寺 로갔다。 가시 스
에 못있어 橫說하며
在에對한 思惟關係
의題를究明 結集하려
던學者들 東西의哲
學一實 蓄穢를주
어보았다 吉今과

星巨界育教治政宗

고희기시고 을리엘·T·S

人生事完蓋棺後라디니

姜慧遠

—梵山스승님 四九젯날의 日記—

새벽부터 終日토록
비가내렸다。日氣마저
스승님의 無說說인양
눈물져온 地藏의 未
盡願을 말해주는듯싶
었다。

그렇고보니 入寂하
신 날은 이땅의 混
濁을 淨化하려던 뜻
鴻을 徹化하셨던 白雪로
象徵인양 社會惡이 따
덮였고 永訣에도今
吊客과의 7千
年들어 처음맞는 溫
暖한 날씨였으니—喪
興行列이 街頭로 나
갔을때 〃흘물한 분이
가시니 날씨도 〃
나〃달하는것을 옛들
은 記憶이난다。

2萬3千5百48日의
生涯를 돌이켜보시고
一人間3萬3千日 不
如禪家半日閑」이라可
笑一世하셨을지 모르나
凡象의 미욱한탓
인지 높은 次元을 알
길없이 그저 哀切하
기만하다。

그의一生이 誠實하였기에그
를 信賴했고 有能했기에 期待했으
며 몸바쳐 겨레를사랑하였기에 그를 尊
敬한다。

말해서 宗教、政治、教育界를 爲하여 獻身하였다는經歷에 뒤따른 平面的인 利即 이야기만으로서는 날말이 되 垂直으로 뻗은그의 높이와 깊이는헤아릴수 없겠다。같은 頓悟가 아니고서는人間 梵山스승님의本然은 貴不及 測不難

生이 誠實하였기에그를 信賴했고 有能했기에 期待했으며 몸바쳐 겨레를사랑하였기에 그를 尊敬한다。

열핏、政治、教育界를 爲하여 獻身하였다는經歷에 뒤따른 書上名利即 平面的인 이야기만으로서는 날말이 되 垂直으로 뻗은그의 높이와 깊이는헤아릴수 없겠다。같은 頓悟가 아니고서는人間 梵山스승님의本然은 貴不及 測不難

世上에서는 그의一生이 誠實하였기에그를 信賴했고 有能했기에 期待했으며 몸바쳐 겨레를사랑하였기에 그를 尊敬한다。

말해서 宗教、政治、教育界를 爲하여 獻身하였다는經歷에 뒤따른 書上名利即 平面的인 이야기만으로서는 날말이 되 垂直으로 뻗은그의 높이와 깊이는헤아릴수 없겠다。같은 頓悟가 아니고서는人間 梵山스승님의本然은 貴不及 測不難

世上에서는 그의一生이 誠實하였기에그를 信賴했고 有能했기에 期待했으며 몸바쳐 겨레를사랑하였기에 그를 尊敬한다。

劇과 다이아로그

金興

<下>

相은 生活인 觀客이 雨

演劇은 觀客인 그들 生活人들에게 生活 教育 方法에 行動보다 直接的인 「다이아로그」의 役割을 시키는 것이다。

「다이아로그」엘 劇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다이아로그」의 漢字表現手段인 말엘 「글로쓰이는말」과 「소리로말하는 말」이 있다。

劇의 위대성은 直接的인데 있어서 산 藝術이라고 할 수 있다。그 때문에 劇과 「다이아로그」를 通해 劇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과 結付되는 것이다。

(同門·演劇人)

「다이아로그」란 劇을 이룩하는 自然形態로서 人物이나、줄거리 또는 그 어느편도 모두 看做했다。一種의 對話에 不過한 것이니늘 멘히累 저만 무슨 심부름이 라도 있으려니하여 10 가 될알아서도 情 時가 되자 찢어진비 니루 雨傘 忽 과함께 然 忽普溪寺 로갔다。 가시 스